

지난해 농어가 소득 9%대 증가 “지원금 영향”



▲ 지난해 농어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픽=통계청 자료 편집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지난해 농어의 소득이 늘었다. 농어업 수익이 양호했던 가운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공적 지원이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4천503만 원으로 전년

보다 9.3% 증가했다. 2018년(10.0%) 이후 2년 만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전소득이 2019년 1천123만 원에서 지난해 1천426만 원으로 27.0%(303만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전 소득에는 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금, 기초연금 등 공적지원금이 포함된다.

농업소득은 1천182만 원으로 15.2% 늘었고 농업외소득은 1천661만 원으로 4.1% 감소했다.

지난해 어가의 평균소득은 5천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2003년(10.8%)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어가 역시 이전소득이 1천433만 원으로 27.7%(311만 원) 늘어난 것이 소득 증가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어업소득은 2천272만 원으로 9.9% 늘었다. 패류 등 양식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어업외소득은 1천296만 원으로 2.8% 줄었다.

결혼·출산 최저... 이혼은 늘어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쓰면서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주저앉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이 많은 1분기에 0.8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이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 5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88명에 그쳐 지난해 1분기(0.91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으로 1명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0.8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한 7만 7557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7,039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4분기부터 6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4만 8,0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나 줄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만 5,206건으로 3.5% 늘었다. 이혼이 증가한 건 2019년 4분기 이래 처음이다. 특히 동거 기간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16.9% 급증했다.

인구이동은 주택 거래가 주춤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의 '4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이동자 수는 5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 줄었다. 주택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국식품 수출 ‘역대 최고’



▲ Costco 매장에 진열된 한국 라면. 사진=농심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 식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됐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지난해 축·수산물과 음료·주류를 제외한 한국식품 수출액은 2019년보다 14.6% 증가한 42억7천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에서도 '집콕' 생활이 늘면서 라면, 포장만두, 소스류 등 간편식품이나 간편조리용 소스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라면(6억400만 달러)이 29.2%, 즉석밥(3천700만 달러)이 53.3%, 포장만두(5천100만 달러)가 46.2% 증가율을 보였다.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 수출도 약진했다. 김치(1억4천500만 달러) 수출은 37.6% 증가했고 고추장(5천100만 달러)과 된장(1천200만 달러)도 각각 35.2%와 29.1% 증가했다.

주요 해외 시장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늘며 시장 순위도 뒤집혔다. 대미 식품 수출액은 7억 9천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3% 늘며 1위를 올라섰다. 2019년까지 한국식품 최대 시장이었던 일본은 3위로 2계단 내려갔다. 대중국 식품 수출은 17.2% 늘어난 7억4천만 달러였다.

관세청은 "이동제한과 자택격리 장기화로 보관·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로 한국 음식도 문화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아진 것이 수출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